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osed Faceted Scheme for Literature

정 해 성(Hae-Sung Chung)**

〈목 차〉

Ⅰ. 서론
Ⅱ. 조합식 분류의 이론
1. 조합식 분류체계의 필요성
2. 분류체계의 작성 단계
3. 분류기호의 문제
4. 형식구분(표준구분과 공통구분지)
Ⅲ.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설계
1. 문학에서 사용되는 패싯(개념)
2. 패싯순서
3. 분류기호의 선택
4. 새로운 문학분류표의 사용법
Ⅳ. 결론

초 록

미래의 분류체계가 모든 주제를 분류의 대상으로 할 때 열거식 분류체계는 조합식 분류체계로 변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학류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분류체계는 기호의 조합방법이 간단하며, 패싯에 따라 기호를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패싯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혼합기호를 사용하여 분류기호가 복잡하다.

주제어: 패싯, 패싯 구조, 조합식 분류체계, 문학

Abstract

Because all the subjects may become the targets of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numerated into the faceted scheme.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possibility of change and to proposed the new faceted structure scheme(facete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The proposed schemes are : 1) facet structure is simple, 2) meaning of facet is clearness, 3) because using mixed notation, it is complicated.

Key Words: facet, facet structure, faceted classification, literature

* 본 연구는 200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hschung@cu.ac.kr)
• 접수일 : 2003. 6. 5 • 최초심사일 : 2003. 6. 5 • 최종심사일 : 2003. 6. 11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과정중의 하나는 주위의 사물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인간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유별화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러한 과정이 분류체계를 고안해 내는데 사용된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범주들은 누구에게나 논리적으로 지각되고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형식적인 범주로 축약되어 분류체계에 나타난다.

분류체계의 개념적인 구조와 그의 기호들은 이용자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와 연결되고 서가 상에 놓여지는 자료의 물리적인 위치와 연결된다. Downing[1)]은 완전한 분류체계의 성격을 분류의 원리는 유사한 자료를 동일한 위치에 모을 수 있어야 하고, 소재, 형식, 기능, 공간, 시간과 같은 범주(개념)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열거되는 주제(주류)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분류체계에 무한한 전개 능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각 주제의 배열이 일관성 있는 순서를 유지하고 포괄성이 있어야 하고 기호체계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바와 같이 분류체계는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것이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주제를 기술하고 체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거식 분류체계는 주제의 결합방식이 직선적이어서 주제간의 관계 표현이 불완전하다. 즉 열거된 하위 구분지가 불완전하고, 분류기호의 조합 방법도 제한되어 있고, 조합의 순서도 준수되지 않으며 본표에 나타나는 동일한 패싯 안에서의 열거순서도 체계적이지 못해 모든 주제(단순주제, 복합주제, 합성주제)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합식 분류체계는 새로운 주제의 출현시 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열거식 체계보다 개념을 자유롭게 결합함으로서 다양한 주제를 특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지식의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제라는 것도 이미 표현된 기본 개념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서 대부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분류체계가 모든 주제를 분류의 대상으로 할 때 기존의 열거식 체계가 갖는 한계 때문에 조합식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열거식 체계인 DDC도 18판이후부터는 조합식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으나 DDC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는 기호체계로 인해 동일 수준의 주제를 9가지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주제의 전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패싯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

1) Mildred Harlow Dowing.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Jefferson, N.C. : McFarland, 1992), p.89

따라서 본 연구는 열거식 분류체계가 조합식 체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조합식 분류체계의 필요성과 분류기호에 대한 이론을 검토해보고, 열거식 분류체계에서 분명하게 패싯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학류를 대상으로 DDC와 CC를 비교한 결과[2]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조합식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선행연구

그동안의 분류 체계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정보학 분야에서 분류업무 전문가 시스템과 자동분류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분류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각 주제 분야에 따른 주요 분류표 간의 비교연구, 동일 분류표의 판별 비교분석, 그리고 분류표가 채택하고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한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합식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3]가 있고 여러 분류표의 문학류의 구분 방법을 비교한 연구인 LCC, CC. DDC의 어문학구분에 관한 연구[4]가 있고 DDC의 문학류(800)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DDC문학류의 조합식 분류시스템분석 : 20판을 중심으로[5], 문학류 분류를 위한 전문가 시스팀의 개발에 관한 연구 -DDC 20판을 중심으로-[6]가 있고 DDC 패싯 구조를 분석한 DDC의 패싯구조에 대한 연구 -생명과학과 문학을 중심으로-[7]과 DDC 음악류의 조합식 구조에 대한 연구[8]가 있다.

이외에도 열거식 분류체계인 DDC의 판의 변화에 따른 비교 및 개별 주제에 대한 내용의 변화 등이 있으나, 조합식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

2) 정해성, DDC의 패싯구조에 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pp.78-84.
3) 오동근,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권 3호(1998), pp.55-76.
4) 南台祐, LCC, CC. DDC의 語文學區分에 관한 硏究(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1991).
5) 윤희윤, "DDC문학류의 조합식 분류시스템분석 : 20판을 중심으로," 圖書館學論集(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집(1993, 12), pp.351~381.
6) 김정현, 문학류 분류를 위한 전문가 시스팀의 개발에 관한 연구 -DDC 20판을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4)
7) 정해성, 전게서.
8) 정해성, "DDC 음악류의 조합식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147-170.

Ⅱ. 조합식 분류체계의 구상

1. 조합식 분류체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료분류표의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유사한 것은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그 결과 분류된 사상의 명칭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표[9]로 자료분류는 이러한 표를 통해 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체계표를 조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공통의 특성을 지닌 개개의 사물이나 개념을 유사성에 따라 조직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개체를 포괄한 완전한 체계를 조직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연역적 방법으로서 완전한 체계를 전제한 다음 몇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특정한 개체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때 개개의 분화단계를 범주라하고 이를 서열화 한 것을 계층이라고 한다[10]. 따라서 조합식 체계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합식 체계의 기본 구조는 모든 유형의 주제를 분류표에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지식의 각 분야를 어떤 분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패싯으로 불리는 기본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합성하기 위한 공통 구분표와 특수 구분표만을 작성하여 기본주제와 공통구분표 및 특수 구분표의 기호들을 결합하여 함성주제나 복합주제를 구성하게 된다. 조합식 분류표는 분류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석과 합성이라는 과정을 중시하여 분석합성형 분류표라고도 한다.[11]

조합식 분류체계의 아이디어는 18세기에 불란서의 콩도르세가 학문 분야의 목표와 사실에 대한 정보 조직을 위하여 패싯 구조를 사용한데서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나,[12] 도서관의 분류체계로는 1930년대에 랑가나단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조합식 분류체계와 이론은 패싯 구조에 관련된 원칙을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게 적용하여 주제 분석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13]

DDC도 초판부터 주제간의 결합 구조를 도입하였는데, 특히 여러 주제 아래 동일한 표현형식(form of presentation)을 열거하는 것은 구조적인 약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지형식, 시대, 장소 등의 형식구분표(form divisions)를 마련하여, 어느 주제와도 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14], 17판(1965)에서는 지리구분,[15] 18판에서

9)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68.
10) 상게서
11)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Basic and depth version). rev. and ed. by M.A.Gopinath.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9), p.8.
12) Magda Whitrow, "Historical Studies in Documentation : an eighteen-century Faceted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39 (1083), pp.88-94.
13) Lois Mai Chan, P. A...Richmond and E. Svenonius ed. *Theory of Subject Analysis : An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 McGraw-Hill. 1985) pp.85-88.

는 다섯 개의 보조표[16]를 추가하고, 또한 본표 안에서 여러 가지 합성지시에 의한 조합 기법을 사용하여 점차 조합식 구조 요소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DDC는 합성주제의 표현을 위한 패싯 공식이 없어 개개의 주제 아래에 지시된 합성 방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패싯 구조가 복잡하지만, 판의 개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체계가 패싯 구조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판의 음악류, 그리고 21판의 생명과학, 행정학 등이 그 예이며 패싯 지시기호를 도입하여 생명과학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기호의 의미가 이중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호안에서 구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DDC의 패싯 구조가 조합식 분류체계의 방법을 따르는데 아직은 구분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하위 구분지의 배열에 무리가 따르며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DDC 편집정책위원회에서 패싯 기호를 사용하여 의미가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여 반복되는 내용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검색의 효율을 기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DDC의 구조 형태를 패싯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DDC가 특정 개념을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패싯 기호를 분류표가 개정될 때 반영하고, 기호 조합을 위한 합성지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주제를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17].

2. 분류체계의 작성 단계

분류표의 작성단계를 랑가나단[18]은 개념단계, 언어단계, 기호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모든 분류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체계를 구상할 때에는 대상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첫 번 째 단계이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주제, 인접된 두 세 개의 주제 그리고 기존의 체계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에 대한 재구성의 방법등이다. 어떤 대상이든 이들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선택된 주제에 따라 조합식 또는

14) Alan G. Taylor,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8th ed. (Englewood, Co. : Library Unlimited. 1992) p.320.

15)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Lake Placid, N.Y. : Forest Press.1965), 2 vols. pp.22-23.

16) — —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Lake Placid, N.Y. Forest Press, 1971), Vol.I, pp.375-439.

17)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Albany, N.Y. : Forest Press, 1996). Vol.1. p.xx, Vol.4. 1057, 1114-1118.

18)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열거식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용자의 요구에 합당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개념단계에서는 분류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사용되는 패싯과 용어를 각종 참고문헌과 참고도구 및 이용자의 요구들을 참고하여 수집하고 그 주제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을 예비적인 범주아래 모아 배열하고 이들을 공통점이 있는 패싯으로 분석하고(조합식 분류에서는 PMEST의 순서를 추천함) 이들에 대한 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패싯안에서의 순서는 CC의 패싯순서에 관한 다섯 가지 원칙과 이용자의 요구 내지는 필요성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유용한 순서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실제로 모든 이용자에게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유용한 순서의 원칙은 있을 수 없다. 즉 이용자의 요구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유용한 순서의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할 유용한 순서의 원칙은 결국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19].

그러나 분류표의 순서는 도치의 원칙에 따라 패싯 순서의 역순이 되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것이 특수한 것의 앞에 배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이 끝나면 패싯 내에서 구분지 계열에 대한 물리적인 배열이 마련되어야 하고 각각에 대한 분류기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분류기호의 문제

분류체계에서 분류기호는 개념과 주제를 표현한 기호이면서 용어의 대체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연속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유용하고도 체계적이며 기계적으로 지식을 배열하기 위해서이다. 이 기호는 온라인 목록과 데이터 베이스에서 탐색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자료를 물리적으로 조직하는데 사용된다[20].

분류기호는 분류체계중의 특정주제에 대한 확인과 서가상 혹은 목록기입상의 자료를 명확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모든 명사의 논리적 순서를 간략한 형식으로 표현한 상징이며 부호로 숫자, 문자, 기타 기호 등이 사용되는데 분류기호가 지녀야 할 조건을 Hunter[21]는 유일성, 단순성, 간결성, 포용성, 융통성, 표현성을 제시하고 Foskett[22]는 조기성, 포용성, 표현성, 간결성, 융통성 등이라 을 제시하고 있다. Sayers[23]는 단순성, 간결성, 신축

19) 김태수, 콜론분류법의 이해(미정고판) (서울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6), p.20.
20) 김태수, 분류의 이해(서울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141.
21) Eric J. Hunter, *Classification made simple*(Hants : Gower, 1988), pp.60-64.
22) A. C. Foskett,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5th ed.(London : Library Association, 1996), pp.183-199
23) Arthur Meltby, *Sayer's manual of classificaion for librarians*. 5th ed.(London : Andre Deutsch, 1978), pp.72-90.

성, 계층성, 조기성이 있는 기호가 좋은 기호라고 하고 특히 기호는 패싯과 상(Phase relation)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24]고 하였다. Ranganathan은 기호가 갖추어야 할 성질로 고유성, 간결성, 표현성이라고 하였다. 고유성은 분류기호는 하나의 의미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며 간결성은 분류기호는 가능하면 쓰고 발음하기에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성이란 분류기호는 주제와 관련되고, 주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25]를 말하는 것이다.

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한가지 기호만을 사용하는 순수기호법과 두가지 이상의 기호를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이 있는데 DDC의 경우는 순수하게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는 순수기호 체계이며, CC의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대,소문자. 그리스 문자, 구두점, 수학기호 화살표와 같은 모든 기호를 사용하는 혼합기호 체계이다. 순수기호는 계층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며 기호가 단순하며 순차성은 있으나 패싯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나 혼합기호의 경우에는 분류표의 기본기호를 짧게 할 수 있으며 구분력이 순수기호보다 높다. 또한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기 위한 포용성과 전개성도 순수기호보다 우세하다.

한편 DDC는 기호체계로 인해 동일 수준의 주제를 9가지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주제의 전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대등한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어 전개 수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DDC가 지닌 기호체계의 약점으로 인해 동일 수준의 주제를 동일한 계층에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따라서 DDC도 CC에서 주제영역을 확장할 때 기본 주제에 영문자를 합성하여 전개하는 방법과 같이 십진체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목의 위치에 영문자를 사용하면 주제 전개에 융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제의 구성요소인 개념간의 관계와 다층구조를 표현하는 기호인 패싯 기호를 열거식 분류와 마찬가지로 조합식 분류도 각 패싯과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패싯 기호나 패싯 지시기호를 사용하여 각 패싯을 구별하고 있다. 예컨대 CC에서는 PMEST의 의미를 표현하는 패싯 지시기호외에도 여러 가지 패싯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26].

---

24) *Ibid.*, p.74.

25)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 Vikas, 1981), p.129.

26) CC에서는 패싯지시기호
, 핵심(Personality)
; 재료 (Matter)
: 에너지(Energy)
. 공간(Space)
' 시간(Time)
* 단집 형태와 내삽표시
← *시간패싯 내에서 시간의 양*
" 공통구분개념 표시(ACI)

이러한 패싯 지시기호들은 주제 안에 포함된 각 개념들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서수 값(ordinal value)을 선형 배열(linear arrangement)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4. 형식구분(표준구분과 공통구분지)

일반적으로 자료분류의 순서는 총류와 문학류를 제외하고 주제와 그 학문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에 따라 전개시킨다. DDC의 대표적인 보조표인 표준구분(Table 1 : Standard subdivision)은 자료의 체제, 물리적 형식, 또는 취급의 방법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기 이해 마련된 보조표로 자료의 물리적 형식은 사전, 연속간행물, 서지 등의 자료의 외형식을 말하며, 취급의 방법이란 어떤 주제의 철학적, 이론적 접근이냐, 혹은 역사적, 지리적 접근이냐 하는 것들의 서술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주제에 공통적인 기호를 부여하기 위한 조기표로 다음의 6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27]. 즉 타 학문의 기법들을 해당 주제와 관련 지워주는 구분(교육이나 연구, 경영관리, 철학, 이론), 해당 주제를 그 이용자들과 관련지어주는 구분(직업으로서의 주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주제), 특정 정보를 파악해 주는 구분(Directory, 상품목록, 통계), 전체 주제를 제한된 상황에서 다루는 구분(사람의 종류나 지역, 시대), 서지적 형식을 지시해 주는 구분과 그 외의 잡다한 구분(전기,공식, 명세서등)이다.

CC에서 DDC의 표준구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공통구분지(Common isolates)로 특정 문학형식 이외의 서술 형식과 출판 형식을 위해서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ACI(Anteriorising Common Isolates)[28]를 마련되어 있다. DDC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구분(Table 1)이 있으나 문학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Table 3 (개별문학을 위한 세구분)에서 Table 1의 기호 -08과 -09를 전집과 비평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DC 표 전체에서 사용하는 -08과 -09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 동음어의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다. CC의 공통구분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 상관계
- 복합주제
→ 시간패싯 내에서 시간의 양

기호구성의 예 :
미국의 중앙은행에서의 대출은 X,62,1;64.73
X 는 경제학 (핵심 주제)
62 는 경제학의 하위 패싯인 금융(하위 핵심 주제)
1 은 중앙은행 (금융의 하위 패싯)
64 는 대출 (에너지)
73 은 미국 (공간)

27)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s*. 21th ed. *op.cit.*, Vol.4. p.905.
28)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op.cit.*, p.105.

ACI와 표준구분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CC의 ACI와 DDC의 표준구분 비교

항 목	CC	DDC	항 목	CC	DDC
서지(일반)	a	-(016)	자서전	w1	-092
용어집	b	-03	어록	w2	
도표	c	-021	서한	w4	T3의 -6
공식	d	-0212	전집	x	T3의 -08
지도	f		교육프로그램	y1	-077
백과사전	g	-03	Syllabus	y2	-0202
정기간행물	m	-05	Synopsis	y3	-0202
연속간행물	n	-05	Scope	y4	
회의 보고서	p	060	Case study	y7	-0722
규약	q		Digest	y8	-0202
역사	v	-09	기술 용어	yP	-03
전기	w	-092			

한편 CC에서는 공간 패싯 다음에 사용하는 ACI(표-2)와 시간 패싯 다음에 사용하는 ACI(표3)가 있다.

〈표 2〉 CC의 공간 패싯 다음에 사용하는 ACI

항목	CC	DDC
정기적인 관리보고서	r	-06
통계 (연속간행물)	s	-021

〈표 3〉 CC의 시간 패싯 다음에 사용하는 ACI

항 목	CC	DDC	항 목	CC	DDC
통계	s	-021	고화폐	v3	737
자문위원회보고서	t		문장	v44	929.6
조사	t4	-0724	족보	v46	929.1
계획	t5		Tradition	v5	
Ideal	t6		연대학	v6	529
Source 자료	v		문학	v77	800
고고학	v1	930.1	언어	v78	400
금석학(문)	v2	411.7, T4의 -11	문서	v8	020

CC는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CI와 PCI를 마련하고 있다. ACI(Anteriorising common isolate)와 PCI(Posterising common isolates)는 기본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공통구분지로 DDC의 표준구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ACI의 하위 패싯을 결합할 수 있는 패싯 공식을 가진 경우도 있어 주제구분, 지리구분, 연대구분이 가능하다.

ACI는 주제에 합성되어, ACI가 없는 동일 주제의 다른 문헌보다 우선 배열되게 하는 구조로 ACI로 합성된 문헌을 접근 문헌(approach document)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필요한 정상적인 문헌에 앞서 예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헌을 말한다. 이러한 문헌에는 서지, 용어집, 연속간행물, 회의록, 표, 공식, 지도, 백과사전, 교과과정표 등이 포함된다.

ACI는 패싯지시기호 (")를 사용하며 공간 패싯 앞에 적용되는 경우, 공간 패싯 뒤에 적용되는 경우, 시간 패싯 뒤에 적용되는 경우[29] 가 있다. 또한 ACI는 핵심 범주의 1차, 2차 수준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패싯 공식 (분류기호)"[P1][P2] 을 가지고 있으나 각 개념에 따라 다르다. CC의 ACI 사용방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간 패싯 앞에 적용되는 경우
   문헌정보학 사전 2"a
   랑가나단의 전기 2"wM92,1
   세익스피어의 전기 O111,2J64"w
   랑가나단의 전집 2"xM92
2) 공간 패싯 뒤에 적용되는 경우
   1970년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지표 X.44"sN
   인도의 농업통계초록, 1952 J.44"sN52
3) 시간 패싯 뒤에 적용되는 경우
   도서관자문위원회 보고서(인도 1957) 2.44'N57"t
   Library Science Abstracts 2"a"m

PCI는 ACI와 달리 PCI로 합성된 문헌을 뒤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PCI를 지닌 분류기호는 PCI가 없는 동일 분류기호 다음에 오게 됨을 의미한다. 모든 공간 구분지와 시간 구분지는 PCI에 해당한다. 계산, 설계, 측량, 기관, 학술단체, 기업체, 산업체 등이 PCI에 포함된다. PCI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30].

1) 에너지 PCI
   에너지 PCI는 : (반점)으로 연결된다.
   문학비평 O : g
   콜론분류연구 2:52N3:f
2) 재료-성질 PCI
   재료-성질 PCI는 ;(쌍반점)으로 연결된다.
   대학도서관의 가치 2,J3 ; x4

---

29) ① *Ibid.*
② M.P. Satija,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 a Practical Introduction*(New York : Ess Ess Publication, 1989). pp.48-54.

30) *Ibid.*

도서관 분류의 장점 2;5,x21

3) 핵심 PCI

핵심 PCI는 쉼표를 사용하여 어떤 분류기호에도 합성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협회에 관련된 것이다. 핵심 PCI는 공간 패싯 다음에 오며, 공식이 제시되어 있다[31].

DDC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패싯의 조합과정이 다양하므로 분류하는데 난해한 문제가 많다. 즉 문학을 분류하는데 형식 패싯을 적용하므로 생기는 문제점을 분류자 입장에서는 문학 형식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급하기가 곤란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저자의 저작이나 개인 저자에 대한 저작이 형식에 따라 분리 및 분산이 되므로 불편하고 분류자에 따라 문학적 저작의 형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 혼란이 초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32]. 따라서 문학 형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기호의 합성과정도 달라지고 자료도 분산 배치되어 검색에 어려움이 많으며, 시대 패싯을 사용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Ⅲ.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설계

1. 문학에서 사용되는 패싯(개념)

문학에 대한 조합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표본이 될 수 있는 저작들에서 볼 수 있는 개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Encyclopedia of literature (문학, 백과사전)

Collection of late 20th century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 후기20세기, 전집)

아동문학사 (아동문학, 역사)

세계수필문학전집 (세계문학, 수필, 전집)

Collection of Wordworth's poems (영국문학, 시, 전집 작가)

The Good earth(Pearl S. Buck) (미국문학, 소설, 작가)

무정 (이광수의 소설) (한국문학, 소설, 작가)

An encyclopedia of English literature(영국문학, 백과사전)

A Critical study of Japanese drama(일본문학, 희곡, 비평)

A collection of modern Estonian play (에스토니아 문학, 희곡, 현대, 전집)

---

31) Satija, *Ibid.*, pp.52-56.

32) Lois Mai Chan, "The form distinction in the 800 class of the Dewey Decimal Schem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5 No.4(1971), p.458.

A Collection of English literature for boys (영국문학, 전집, 어린이)
A history of Spanish fiction (스페인문학, 소설, 역사)
A critical appraisal of romanticism in American literature(미국문학, 낭만주의, 비평)
한국현대역사소설전집 (한국문학, 역사소설, 전집)
현대중국문학론(중국문학, 현대, 비평)
세계 단편문학전집(세계문학, 단편소설, 전집)
한국 전쟁 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쟁, 전집)

위의 표본에서 볼 수 있는 개념들을 패싯으로 나누어 보면 각국 문학에 따른 범주, 문학의 형식에 따른 범주, 특정시대에 따른 범주, 그리고 특정 이용자를 위한 개념과 특정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범주 그리고 작가를 나타내는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각국 문학 패싯)
- 세계문학
- 영국문학
- 미국문학
- 에스토니안 문학
- 중국문학
- 한국문학
- 스페인 문학

(문학 형식에 따른 패싯)
- 전집
- 비평,
- 역사적 연구,
- 백과사전
- 시
- 희곡
- 소설
- 단편소설
- 역사소설

(시대에 관한 패싯)
- 20세기
- 현대

(작가 패싯)
- Wordworth

Pearl S. Buck
이광수
(특징이나 테마나 사람을 위한 패싯)
어린이를 위한
전쟁
낭만주의
역사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문학에서 사용되는 패싯은 언어 패싯, 문학형식 패싯(일반형식 포함), 시대 패싯, 작가 패싯, 그리고 어떤 특징이나 주제나 특정 사람에 대한 패싯들이다.

위의 예를 기준으로 각 패싯에 대한 하위 구분지에 대해서는 망라성의 규범에 따라 구분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예) 형식 패싯 소설의 하위구분지 계열
단편소설
역사소설
사랑소설
낭만소설
과학소설
모험소설
공상소설

2. 패싯순서

패싯의 열거순서는 구분특성을 구분의 대상이 되는 영역, 즉 피구분체에 적용하는 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33] 어떤 열거순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헌들을 함께 모을 수도 있고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거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각 분류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거순서를 보면 CC는 언어>형식>작가(시대에 따른)> 작품의 순서이고, DDC는 언어>문학형식 >하위형식>시대>특징이나 테마>의 순이다. UDC는 DDC와 같은 열거순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LCC는 언어>국가>시대>개별저자의 순서로 구분되고 형식 패싯은 사용하지 않아 문학작품의 저자를 구분 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학에서 언어 패싯을 문학 형식 패싯보다 먼저 열거하게 되면 동일한 언어로 표현된 문학 작품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게 되는 반면, 시나 드라마, 소설 수필 등의 작품들은 쓰여진 언어에 따라 분산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형식 패싯을 언어 패싯보다 먼저

33) 오동근, 전게서, p.66.

열거하게 되면 동일한 문학 형식의 작품들은 한곳에 모이는 반면, 동일한 언어의 작품들이 형식에 따라 분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열거순서는 이용자의 요구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곧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성을 갖는 순서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분류체계에서는 언어>형식>하위형식>작가>시대>특징/테마/사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각 패싯 내에서의 구분지의 배열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였다.

언어 패싯은 한국의 도서관을 위해서 저작근거의 원칙과 공간 인접 순의 원칙에 따라 한국어를 앞에 놓고 중국어, 일본어의 순 다음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기타의 순서를 택하였다.

형식 패싯은 문학에서 사용하는 장르에 따르는 전통적인 규범 순서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열거하였다. DDC와 CC 그리고 UDC에서 채택하고 있는 패싯 순서에 따라 시>희곡>소설>수필>강연>서한>유머>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작가 패싯에 대해 CC는 연대기호를 사용하여, 저자의 출생연도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유를 특수한 문학형식 구분이나 언어 구분에 아래에 속하는 작가의 배열은 저자명의 자모순이나 연대순으로 구성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자의 이름과 저자의 출생연도는 문학류에 있어서 어떤 주어진 형식아래에서 속하는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CC7판에서는 저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우연한 특성이지만 출생연도는 자연적인 것이며 적절한 특성이다. 문학을 연구하는 학생에게는 저자의 연대순 배열이 더 좋을 것[34]이므로 CC에서는 작가의 이름보다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는 연대기호를 작가패싯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입수되는 문학류의 자료에 대해 작가의 출생년을 확인하고 이것을 연대구분 기호로 변화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저자명을 기준으로 하는 문자구분을 사용하여 동일 작가의 작품이 한 곳에 집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 패싯은 DDC는 각국 문학에 따라 다른 시대구분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작품의 초판 연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시대순으로 배열이 될 수 도록 하였다.

특징/테마/사람 패싯은 특정의 문학 형식이 아닌 표현이나 서술 방법, 테마나 특정 주제 및 특정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전집과 비평 및 문학사의 하위 구분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4) S.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op.cit.*, p.248.

3. 분류기호의 선택

분류기호법의 종류는 한가지 종류의 기호만을 사용하는 기호법과 2가지 종류이상의 기호를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이 있고 주제의 구성요소는 두 개념간의 관계를 지시하는 지시기호와 더불어 다층구조의 기호인 패싯기호법이 있다.

DDC가 채택하고 있는 기호법은 계층구조와 조기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과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또한 표현되는 기호가 패싯의 구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혼합기호법을 사용하는 CC는 간결성의 면에서 혼합기호를 사용하여 구분력이 높고, 패싯의 구분이 분명하지만 기호가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기호로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문자, 그리고 임의의 기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종류의 기호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다만 많은 경우를 보기 어려운 특징/테마/사람에 대해서는 원괄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언어 패싯의 하위 구분지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으며, 형식 패싯은 알파벳 대문자, 작가 패싯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 그리고 시대와 특징/테마/사람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혼합기호를 채택한 이유는 패싯에 따라 기호를 달리함으로 패싯의 구분이 명확해 지고 별도의 패싯 지시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1) 언어

문학에서 첫 번째 패싯으로 사용하는 언어 패싯은 세계 문학에 대해서는 0을 사용하고 KDC[35]의 언어류와 문학류에서 각국을 위해 전개한 기호를 언어패싯을 나타내는 기호로 세분하여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과 협력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국어표

0 세계문학
1 한국어 문학
2 중국어 문학
3 일본어 문학
39 기타 아시아어 문학
4 영어 문학
5 독일어 문학
59 기타 게르만어 문학
6 프랑스어 문학
7 스페인어 문학
8 이탈리아어 문학

35)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서울 : 동회, 1996)

9 기타 제어 문학

2) 형식 패싯

형식 패싯은 일반 형식과 문학 형식으로, 일반 형식은 모든 주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분지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학형식을 우선하여 구분하고, 일반형식에 대한 것은 CC의 ACI의 사용방법에 따라 모든 기호의 마지막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합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문학 형식구분은 알파벳 대문자를 한 자 또는 두자까지 사용하여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집과 비평 및 문학사는 공통구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문학의 형식 패싯으로 많이 발견되는 개념이므로 문학형식의 범주에 넣어 구성하였다. 그러나 특정 문학 형식과 전집이나 비평의 형식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문학형식을 우선으로 하고 전집이나 비평은 ACI로 사용한다. (부록 1. 문학형식구분표)

문학형식구분 (1차구분)

- g 비평
- v 역사
- x 전집
- y 연구
- C 시
  - CC 극적인 시
  - CD 서사시
  - CE 운문시
  - CF 서정시
  - CG 단시(5행시)
  - CH 담시(Ballads)
  - CJ 교훈(설교)시
  - CK 유머, 풍자시
  - CL 단명시 (경시)
  - CP 기타
- D 희곡
- E 소설
- F 수필
- G 강연
- H 서한
- J 유머 및 풍자
- P 기타

일반 형식을 위한 공통구분 (CC의 ACI를 사용)

- a 서지
- c 사전(辭典), 용어집
- d 표(Table)
- e 공식
- f 지도

g 비평
k 사전(事典), 백과사전
m 정기간행물, 연속간행물
n 연속간행물
p 회의보고서
q 규정집
r 번역서
s 통계
v 역사
w 전기
x 전집
y 연구, 교수법

3) 작가 패싯

작가 패싯에 대해 CC는 연대구분기호를 사용하여, 저자의 출생연도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자구분을 사용하여 구분하여 동일 작가의 작품이 한 곳에 집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에 대한 기호는 리 재철[36]의 한글순 도서기호법의 제5표(완전형 가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저자기호를 사용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청구기호를 구성할 때 저자에 따라 분류기호가 개별화되므로 별도의 도서기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복본과 권책수에 대한 기호는 줄을 달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4) 시대 패싯

시대 패싯은 DDC는 각국 문학에 따라 다른 시대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작품의 초판 연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시대순(연대순)으로 배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대에 대한 패싯은 CC에서는 전 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공통구분을 사용하고, DDC에서는 Table 1 의 -0901-0905에 시대구분 장치가 있고 또한 문학의 경우에는 각국 문학에 따라 다른 시대 구분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작가 패싯을 이미 사용하여 작가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기호를 매기도록 한다.

기호 매김의 방법은 리재철[37]의 새 연대순도서기호법에 따라 1900년대에 발행된 것은 마

36)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37) 리재철, 새연대순도서기호법(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6)

지막 두 자리 숫자(십대 이하의 숫자)를, 2000년대의 것은 마지막 세 자리 숫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작가 기호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대 기호 앞에 ,(콤마)를 표시하여 구분해 준다.

주어진 시대가 일정한 간격을 가질 경우에는 시작 연도와 끝나는 연도를 -(붙임표)로 이어서 표시하며 특정의 세기를 나타낼 경우에는 세기의 마지막 연도를 채기한다.

예 :

20세기	,1999
1940년대	,41-49
6,25동란	,50-53

5) 특징/테마/사람에 대한 패싯

특징/테마/사람 패싯은 특정의 문학 형식이 아닌 표현이나 서술 방법, 테마나 특정 주제 및 특정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저작 근거에 따라 패싯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 패싯의 기호법은 아리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원괄호)안에 표시하도록 하며 하위 구분지는 다음과 같다. (부록 2. 특징/테마/사람 구분표)

1 특수한 표현법, 서술법, 관점
2 특수한 기술 방법
3 특정의 테마를 포함한 문학
4 특정 주제를 강조한 문학
7 특정 종족을 위한/에 의한 문학
8 특정 사람을 위한/에 의한 문학

4 새로운 문학분류표의 사용법

1) 분류의 순서

새로운 문학 분류표의 기본 공식은 [언어] [형식] [작가] [시대][특징/테마/사람][공통구분]이다. 이 순서에 따라 기호를 조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언어 패싯에서 각국 문학에 해당하는 기호를 찾는다

한국문학	1

문학 작품은 원칙적으로 원 작품에 사용된 국어 아래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쓴 일본어 소설은 1E가 아니라 3E가 되며, 두 가지 언어

(모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작가의 모국어 아래 분류하고 외국어로 쓰인 것은 번역서에 대한 기호를 첨가한다.

여러 국어로 쓰인 한 작가의 전집은 저자가 가장 많이 쓴 언어로 분류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후의 국적이 있었던 언어아래 분류한다.

② 분류하고자 하는 자료에 특정 문학형식이 있으면 형식 패싯에서 해당기호를 찾아 언어 패싯에 더해준다.

소설	E
한국소설	1 + E ⇒ 1E
한국단편소설	1 + EA ⇒ 1EA

그러나 2가지 문학형식이 합해진 저작은 형식 패싯의 순서로 보아 앞에 나오는 형식으로 분류하고, 3가지 이상의 형식이 합해진 경우에는 전집으로 분류한다.

③ 작가의 이름을 저자 기호표에 의해 기호화하여 더해 준다.

박토의 혼 / 조정래소설. - 서울 : 아카데미문화사, 1991

조정래의 기호는 조74가 되어 위의 자료는

한국문학	1	
소설	E	1 + E + 조74 ⇒ 1E조74
조정래	조74	

④ 위의 자료에 대한 시대기호를 더해 준다. 위의 자료는 1991년에 발행되었으므로 91을 택하여 1E조74에 더해주면 1E조74,91이 된다. 이는 개인 작가의 작품의 경우에 사용하며 2인 이상의 저작물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⑤ 특징/테마/사람 패싯이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기호를 찾아 더해 준다. 그리고 지리구분이나 주제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구분의 방법을 사용한다.

아동을 위한 한국소설문학전집

한국문학(1) + 소설(E) + 아동(8223) + 전집(x)순으로 합하여 1E(8223)x가 된다.

뉴잉글랜드지방 주민에 의한 미국 문학 전집 ⇒ 42x(81+NE)

2) 새 분류표를 이용한 분류의 실제

Encyclopedia of literature 0k

0 + k ⇒ 0k

Collection of late 20th century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 후기20세기, 전집)

0 + x + ,01-99 ⇒ 0x,01-99

아동문학사 (아동문학, 역사)

0 + y + (8223) ⇒ 0y(8223)

세계수필문학전집

0 + F + x ⇒ 0Fx

Collection of Wordsworth's poems (1965)

4 + C + 워7 + ,65 ⇒ 4C워7,65

The Good earth(Pearl S. Buck) (1945)

4 + E + 벅8 + ,45 ⇒ 4E벅8,45

무정 (이광수의 소설) (1966)

1 + E + 이15 + ,66 ⇒ 1E이15,66

An encyclopedia of English literature

4 + k ⇒ 4k

A Critical study of Japanese drama

2 + D + g ⇒ 2Dg

A collection of modern Estonian play

3965 + D + ,1999 + x ⇒ 3965D,1999,x

A Collection of English literature for boys

4 + x + (8223) ⇒ 4x(8223)

A history of Spanish fiction

7 + E + y ⇒ 7Ey

A critical appraisal of romanticism in American literature

42 + y + (142) ⇒ 42y(142)

한국현대역사소설전집

1 + EB + ,1999 + x ⇒ 1EB,1999x

현대중국문학론

2 + g + ,1999 ⇒ 2g,1999

세계 단편문학전집

0 + EA + x ⇒ 0EAx

한국 아동문학 전집

1 + x + (8223) ⇒1x(8223)
세계 서정시 전집 ⇒ 0CEx
세계 서정시 비평 ⇒ 0CEg
아더 왕에 대한 문학 전집 ⇒ 4x(351)
아더 왕에 대한 문학 비평 ⇒ 4g(351)
20세기 소설에 대한 비평 ⇒ 0E,1999x
동물에 관한 시 전집 ⇒ 0C(362)x
A collection of 18th century world literature about friendship ⇒ 0x,1799(353)
독일시 문학 전집 ⇒ 5Cx
일본 희곡에 대한 연구 ⇒3Dy
영국 서사시 전집 ⇒ 4CEx
미국 역사소설에 대한 비평적 연구 ⇒ 42EBg
A journal of English dramatic poetry ⇒ 4CD2m
20세기 영국문학사 ⇒ 4y,1999
German literature from the classical period(1750-1832) : a collection
⇒ 5x,1750-1832
A collection of English literature illustrating Romanticism ⇒ 4x(142)
A collection of Korean literature for children ⇒ 1x(8223)
A critical appraisal of Romanticism in English literature ⇒ 4g(142)
A critical appraisal of English literature for children ⇒ 4g(8223)
뉴잉글랜드지방 주민에 의한 미국 문학 전집 ⇒ 42x(81+NE)
20세기 불란서 시문학전집 ⇒ 6C,1999x
20세기 불란서 시문학에 대한 비평적 연구 ⇒ 6C,1999g
독일 고전주의 시문학전집 ⇒ 5C(14)x
청소년들을 위한 미국 희곡에 대한 비평적 연구 ⇒ 42Dg(8224)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미국 시에 대한 전집 ⇒ 42Cx(81+NE)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미국 시에 대한 비평적 연구 ⇒ 42Cg(81+NE)
미국 스포츠 단편소설 전집 ⇒ 42EAx(4+S)
조선시대의 한성부를 다룬 한국문학 비평 ⇒ 1x(32+S),1392-1910
계절을 묘사한 20세기 불란서 시문학전집 ⇒ 6C,1999x(33)
계절을 묘사한20세기 불란서 시에 대한 비평적 연구 ⇒ 6C,1999g(33)
19세기 사실주의 불란서 소설에 대한 비평적 연구 ⇒ 6E,1899g(12)

V. 결 론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열거식 분류체계가 조합의 방법도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분류기호로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주제(개념; 패싯)의 표현이 불완전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점차 조합식으로 변화하는데 착안하여 패싯 구별이 분명한 문학류에 대하여 조합식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설계하였다. 새로 제안한 분류체계는

1) 분류기호의 조합방법이 간단하다.

2) 각 패싯에 따라 표현하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된 결과의 기호는 패싯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개인저자의 모든 작품이 저자명에 따라 동일 기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 곳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작품의 발행연도순으로 배열될 수 있다.

4) 지리구분이나 주제구분에는 문자구분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을 위한 기호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5) 언어구분에서 한국어를 우선 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도서관을 위해 유용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6) 각 패싯에 대하여 구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문자, 한글, 임의의 기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류기호가 복잡한 면은 있다. 앞으로 이 기호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1. 문학형식구분표

g 비평
v 역사
x 전집
y 연구
C 시
CC 극적인 시
CD 서사시
CE 운문시
CF 서정시
CG 단시(5행시)
CH 담시(Ballads)
CJ 교훈(설교)시
CK 유머, 풍자시
CL 단명시 (경시)
CP 기타
D 희곡
DA 라디오용 희곡
DB TV용 희곡
DC 영화용 희곡(시나리오)
DD 단막극
DE 독백
DF 비극
DG 역사극, 시대극
DH 희극
DJ 모노드라마
DP 기타
E 소설
EA 단편소설
EB 역사, 시대소설
EC 심리적, 사회적, 현실적 소설
ED 애정소설
EE 연애소설
EF 모험소설
EG 탐정소설
EH 괴기소설
EJ 유령소설
EK 공포소설
EL 과학소설
EM 공상소설
EP 기타
F 수필
G 강연
GA 대중연설
GB 토론
GC 낭송
GD 설교집
GE 좌담
GP 기타
H 서한
J 유머 와 풍자
P 기타
PA 일화, 인용집
PB 일기, 회고담
PC 잡문
PD 산문

부록 2. 특징/테마/사람을 위한 구분표

1 특수한 표현법, 서술법, 관점
 11 비전통적인 관점
  111 인상주의
  112 모더니즘
  113 포스트 모더니즘
  114 미래파(입체파)
  115 표현주의
  116 초현실주의
 12 사실주의, 자연주의, 결정론
 13 이상주의, 관념론
 14 고전주의,
  142 낭만주의
 15 상징주의
  152 우화
  154 공상
  156 신화
 16 비극
  164 공포
 17 희극
 18 반어법

2 특수한 표현방법
 22 해설, 설명
 23 설화, 이야기체
 24 각색
 25 대화체
 26 인물표사

3 테마나 주제를 취급한 문학
 32 장소를 다룬 것(공간구분필요+기호 사용)
 33 시간을 다룬 것
 35 사람을 다룬 것
  351 특수한 사람 (실제 인물, 소설, 전설, 민화에 나오는 인물)
  352 계층에 따른 인물 (인물 구분 필요 + 기호 사용)
  353 성별에 따른 인물
  354 인생행로 (출생, 성장, 노인화)
 36 생물을 다룬 것
  362 동물
  364 식물

4 특정 주제를 강조한 문학(주제구분 필요)

7 특정 종족을 위한/에 의한 문학
 (기호 8에 언어패싯 기호를 첨가)

8 특정의 사람을 위한/에 의한 문학
 81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공간구분 필요)
  (기호 81에 공간기호를 첨가)
 82 특정 계층에 의한 사람
  (기호 82에 주제구분 기호를 첨가)
  822 연령에 따른 구분
   8222 유아(1세-6세)
   8223 어린이(7세-12세)
   8224 청소년(12세-20세)
   8225 장년 (20세-60세)
   8226 노인 (61세 이후)
  824 성별에 따른 구분
   8242 남성
   8244 여성